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 임 신 부	박영주 필립보
보좌 신 부	강인석 F.하비에르(유·초·중·고등부)
	정재준 요한 (청년부)
	김평안 마르코 (이주사목)
	박경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은자 한나 (원장)
	최은정 요셉피나 (중·고등부)
	김미리 에블린 (유·초등부)
꿀벌 유치원	최향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어린이집	김아람 소화데레사 수녀
총 회 장	황태영 프란치스코
연 령 회	김영길 바오로 010-3719-0036 (회장)

● 알 림

- 오늘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1월 13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로 진행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의 지침 - 비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20인 이내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참석 못하는 신자들은 영상 매체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판공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안 넣으신 분은 판공 성사 처리가 될수 있도록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교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교육 봉사자 모집 (국어·영어·수학)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31일 (목)	아침미사	6:30(평일 미사)
	송년미사	20:00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2021년 1/1(금)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06:30, 10:30, 12:00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 미사는 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인원만이 봉헌합니다.

● 주일미사 유튜브 생방송 접속 방법 안내

1.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2. 스마트폰의 유튜브 어플을 실행합니다.
3. 유튜브에서 dybskor 를 검색합니다.
4.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구로3동 성당의 생방송 화면을 찾아 시청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와 영성강좌
- 일 시 : 1월 4일(월) 오전 10시
- 미사집전 : 박선우 그레고리오 신부님

● 다음주일 (1/0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7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2월16일 ~ 12월22일)

• 교 무 금		11,848,000 원
• 주일헌금		2,562,500 원
• 감사헌금	전명례 3만원 이복희 10만원 송명순 5만원 이길자 5만원 도현문 10만원 도현만 10만원 정도선 10만원 황금옥 5만원 박상덕 30만원 정순옥 5만원 강성주 10만원 김태완 5만원 선호난 7.3만원 김갑이 8만원 강정자 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당분간 계재를 중단합니다.

● 성체 분배자 명단

당분간 계재를 중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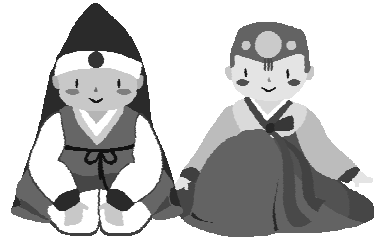
● 주보 7면

- 거리두기 2.5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시간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거리두기 2.5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시간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2/27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구역 외	1~ 5 구역
1/03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구역 외	1~ 5 구역	6~11 구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구역 외 신자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인간의 구원자 사랑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다.

창조의 하느님께서 구속의 하느님으로 계시되신다. “진실하신” 하느님, 창조의 날에 드러내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성실하신 하느님으로 계시되신다. 하느님의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나 다 이루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다.” 성자께서 죄라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도 “죄 있는 분으로 여겨지셨다면”, 그것은 오로지 언제나 창조계 전체보다 위대한 사랑, 하느님 자신인 그 사랑을 계시하기 위함이 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무엇보다도 우선 사랑은 죄보다, 약정보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 하게 된 것” 보다 위대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언제든지 일어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방탕한 아들을 맞으러 달려갈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으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으로 부름 받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늘 기다리며 찾는다. 이 사랑의 계시를 자비라고도 일컫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이 사랑과 자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형상과 이름을 취했던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회칙 <인간의 구원자> (1979년) 9항

인간의 구원자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 이미 말한 바 있듯이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는” 분이 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 이것이 구속 신비의 인간적 차원이다. 이 차원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간성에 깃들여 있는 위대함과 존엄성과 가치를 다시 발견한다. 구속의 신비 안에서 인간은 새롭게 “표현되며” 어느 면에서 새롭게 창조된다. 인간이 새롭게 창조된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무릇 인간으로서 자신을 자기 존재의 즉각적이고 부분적이며 때로는 피상적이고 심지어 가공적(架空的) 이기까지 한 척도와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정과 불확실, 자신의 약함과 죄 많음,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대로 안고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 전체로 그리스도께 몰입하여야 한다. 자기를 발견하려면 강생과 구속의 실재 전부를 “자기 것으로 삼고” 거기에 동화하여야 한다. 만일 인간 내면에 이 깊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실로 인간은 하느님을 흠송할 수 있을뿐더러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깊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인간이 그토록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면,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 주시었다면” 창조주의 눈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겠는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회칙<인간의 구원자> (1979년) 10항